

모두 발언

-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

2026. 7. 27(月). 10:00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 진 창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입니다.

한창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포용금융과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I.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

오늘 논의할 두 가지 주제는
저희가 지난해 이맘때부터 고민해 온 과제들입니다.
하나(SCB)는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파산정보)는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계기로 개최한
현장간담회(7.24)에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SCB)를
구축하겠다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회생·파산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7.9)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 공유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는
모형개발과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고
8월말부터 현장에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공공정보 활용기간 단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활용방식까지 논의를 확대하여
재기의 기회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Ⅲ.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

그동안 우리는 포용금융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포용금융의 역할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금융의 문턱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포용금융의 본질입니다.

특히, AI를 통해 다양한 비금융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는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우리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포용금융은 위험을 외면하는 금융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견하는 금융입니다.

과거의 금융이 제한된 정보로
위험을 가려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금융은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IV. 맺음 말씀

오늘의 두 가지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구적인 배제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어떻게 금융을 바꿀 것인가.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준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